

# 국내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술지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onverting Journals to Open Acces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Archival Science in Korea

정 경 희 (Kyoung Hee Joung)\*\*

이 재 윤 (Jae Yun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오픈액세스 전환 효과: 인용률 |
| 2.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 과정 |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3. 오픈액세스 전환 현황    | 6. 결론               |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에 참여한 7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제시된 요소를 근거로 현황을 파악하고 2개 학술지의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학술지는 CCL을 적용하지 않거나 KJCI에 이를 정확히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고 7개 학술지 모두 DOAJ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전환 이후 새롭게 사용한 학술지 플랫폼에 과월호를 모두 등록하지 못한 학술지가 많았다. 셋째, 저자부담 논문출판비는 부분적으로 인상된 경향이 있고 편집간사 인건비도 인상된 경향이 있다. 넷째, 전환 이후 인용지수는 두 학술지 모두 이전 4~5년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장단기적인 실무 문제를 학회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학술지를 공동으로 출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또 한 번 로드맵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effects of open access conversion of journals from 7 socie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Open Access Publication Declaration Academic Societie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elements presented in the "Roadmap for Open Access Publishing Conversion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in Korea" and analyzed citation rat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First, some journals were not applying CCL or were unable to register it accurately with KJCI, and none of the 7 journals were registered with DOAJ. Second, the newly used journal platforms had not yet registered all previous issues after the conversion. Third,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article processing charges to be partially increased, and there was also a tendency for editorial staff expenses to increase. Fourth, citation indexes after conversion were lower for both journals compared to the previous 4-5 years. This study proposes that joint publication of journals is necessary to solve practical problems jointly with societies while promoting economies of scale and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a roadmap.

키워드: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선언,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문헌정보학 학술지, 기록학 학술지

Open Access Publication Declaration, Open Access Journal Conversion, Korean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rean Journals in Archival Science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춘계 학술대회(2022. 4. 22)에서 발표한 '문헌정보학분야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 이후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교수(khjoung@hansung.ac.kr / ISNI 0000 0004 6488 8643)  
(제1저자,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 ISNI 0000 0004 6490 0075)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5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5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271-291,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27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목적과 방법

오픈액세스 학술지 중에는 구독 학술지에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술지와 처음부터 오픈액세스로 창간한 학술지가 있다. 약 10년 전 Solomon, Laakso, Björk(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환형 오픈액세스 학술지(53%)와 창간형 오픈액세스 학술지(47%)는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환형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과정이 자세히 밝혀진 경우는 드물다. 2016년 하버드 대학 학술커뮤니케이션국(Office for Scholarly Communication, OSC)은 오픈액세스 전환을 모색하는 학회 등 학술지 출판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환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표하였다(Solomon, Laakso, & Björk, 2016). 이에 따르면 학술지 상황이 저마다 매우 독특하므로 전환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는 각기 다르지만 전환 과정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므로 그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재정문제를 계획하고 전화효과를 예측해야 한다는 점, 학술지 구독계약 상대나 이용자 및 투고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점, 과월호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 등은 대부분의 학술지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 학회에서 오픈액세스 전환을 선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심리학회 는 이 분야 16종의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 한다는 ‘(사)한국심리학회 학술지 Open Access 출판 정책 선언’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17개 학회 및 학술지 발행기

관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을 하였다.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분야의 학회도 2018년 4월 공동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이하 ‘문정 OA 선언’)을 하였고 약 4년에 걸쳐 상용DB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순차적으로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였다. 이렇듯 오픈액세스 전환을 외부에 알리면서 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회 내부에서만 진행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오픈액세스 전환과정도 매우 다를 수 있으나 각 학술지의 경험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다른 학회의 전환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지원하려는 정부나 기금지원기관, 정보서비스 기관에게 중요한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20여년간 전 세계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대전환을 겪고 있는데 오픈액세스는 이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다양한 오픈액세스 전환 경험과 그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문정 OA 선언’에 참여한 7개 학술지의 전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 분야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 과정은 한국문헌정보학회의 이사회 회의록과 ‘한국문헌정보학회 OA 추진 TFT’(이하 ‘학회 OA TFT’)와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단체 공동 OA TFT’(이하 ‘문정 OA TFT’) 회의록 및 관련 공문을 참

고하여 설명하였다. 전환 현황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하 ‘문정 OA 전환 로드맵’)에 제시된 4개의 항목인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이용정책, 출판비 확보방안, 출판 및 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학회와 학술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투고 규정과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술지 출판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공지사항을 조사하였고 저작권 관련한 등록사항은 KJCI(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웹사이트에서 파악하였다. 학술지 원문 공개현황은 AccessON과 KJC(Korea Journal Central) 플랫폼과 공공영역의 RISS, ScienceON, KCI 웹사이트와 상업영역의 DBpia, KISS, e-article, 스킨라 웹사이트에서 조사하였다.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각 학회 편집위원장 혹은 총무이사에게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하여 파악하였다. 오픈액세스 전환 효과는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서 인용빈도의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의 인용률을 KCI 인용정보검색 기능으로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학술지의 기본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조사는 2022년 3월 1일~4월 11일에 이루어졌다.<sup>1)</sup>

### 1.2 선행연구

국내에서 학술지 상용DB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환과정이나 결과가 자세히 드러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 인문사회분야에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몇몇 학술지가 논문, 대담, 경과보고의 형식으로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박숙자, 이혜령, 장문석(2020)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지식공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국문학 분야 세계 학회가 오픈액세스 전환을 결정한 배경과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실무의 어려움, 오픈액세스 전환을 계기로 돌아본 학회와 학술지의 역할 등에 대하여 대답을 갖고 이를 공개하였다. 더 나아가 상허학회는 상허학보의 오픈액세스 추진 과정을 내부논의와 회원공지, 위

<표 1> 조사대상 학술지 기본 사항

학술지명	창간	등재지선정	간기	OA 발간	발행기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0	2001	계간	2021.5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2	2004	계간	2020.9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974	2001	계간	202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정보관리학회지	1984	2001	계간	2019.9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연구	1985	2001	계간	2022.6	한국서지학회
기록학연구	2000	2007	계간	2019.4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01	2009	계간	2019.2	한국기록관리학회

1) 2개의 상용DB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었던 1개 학술지는 조사시점에는 하나의 계약만 종료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2022년 6월에 종료되었음.

부기관과 협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시기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개하였다(반재영, 김유동, 장문석, 2020). '문정 OA 선언'에 참여한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도 학술지 출판비, 유통, 이용허락 라이선스 적용 등 실무 처리 방법과 전환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담아 논문으로 공개하였다(정경희, 2020).

해외의 경우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의 구독학술지 중에서 처음으로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Nucleic Acids Research*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다(Bird, 2008). 이 보고는 전환 이전에 이루어진 저자와 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술지 출판비용, Creative Commons License(CCL) 적용, 저자 논문출판비와 그 면제정책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이사회는 2011월 1월 기관지인 *College & Research Libraries*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한 후 첫 호를 발간하면서 편집인의 글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출판비 문제 등에 대하여 밝혔다(Branin, 2011).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The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이 출판하는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도 2012년부터 인쇄본 발행을 중단하고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전환업무 추진 과정도 편집인의 글을 통하여 공개되었다(Cuddy, 2012; Gerrity, 2012). 오스트리아의 *Journal of Political Science(OZP)*의 오픈액세스 전환과정은 사례연구로 발표되었다(König, 2020). 이 연구는 국가보조금과 구독료, 학생과 교수의 봉사료 발행하던 OZP를 오스트리아 과학기금기관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지원기금을 받아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과정과 외부기

관과의 협력, 출판비용 절감 등의 경험을 밝히고 있다. Solomon, Laakso, Björk(2016)는 이러한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에 대한 사례보고와 편집장의 글 등 회색문헌을 방대하게 조사하여 전환의 목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예컨대 전환과정 관리, 재정설계,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아카이빙 방법 등을 파악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술지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용률, 게재논문수, 학술지 사이트 방문자 수 증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Momeni et al.(2019)은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171종의 학술지를 조사하여 전환 이후 학술지의 IF는 높아졌으나 논문에 대한 인용효과는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Momeni et al.(2021)은 약 300종의 전환 학술지를 조사하여 게재 논문 수와 IF가 증가하였으나 학문 분야에 따라 그 변화가 다양하였음을 밝혔다. Wenaas(2021)는 노르웨이의 인문사회분야 11종의 전환 학술지를 조사한 결과 특히 학문분야 외부로부터의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 2.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 과정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의 학술지 발행기관이 공동으로 오픈액세스 선언을 준비하고 7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어느정도 진행하기 까지 약 5년이 걸렸다(〈표 2〉 참조). 이 과정은 한국문헌정보학회 내부에서 오픈액세스 전환을 준비한 시기(1단계), 공동추진을 결의한 시기(2단계), 로드맵을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한

〈표 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과정\*

단계 및 시기	진행사항
1단계: 공동추진 준비 (2017.11 ~ 20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헌정보학회 OA 전환 결정</li> <li>• 한국문헌정보학회 OA 추진 TFT 활동 시작</li> <li>• 춘계 학술대회 기획, OA 선언문 초안 작성</li> </ul>
2단계: 공동추진 결의 (2018.2 ~ 20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회 회장단, OA 전환 공동 선언 결정</li> <li>• ‘문정 OA 선언’ 발표</li> <li>• 상용DB업체에 대한 공동대응, 대외기관 협력 요청</li> </ul>
3단계: 로드맵 개발 및 파트너십 구축 (2018.5 ~ 201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TFT 활동 시작</li> <li>• 관련기관 협조요청 활동</li> <li>• 한국기록관리학회지 OA 전환 지원</li> <li>• OA 로드맵 개발 및 각 학회 이사회 로드맵 추진</li> </ul>
4단계: 전환실행 (2019.3 ~ 20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학술지 OA 전환</li> <li>• 지식공유연대 선언에 7개 학회 참여</li> <li>• OA 출판을 위한 학회 공동협의체 구성 준비모임</li> </ul>
5단계: 전환 후 공동행동 (2019.11 ~ 20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편협’ 출범 취지문 발표</li> <li>• 4개 학술지 OA 전환</li> <li>• ‘문편협 공통기준’ 제정</li> <li>• 공동학술대회: 학회활동과 학술지 출판 과제진단·개선방향 모색</li> </ul>

\* 한국문헌정보학회 이사회, ‘학회 OA TFT’, ‘문정 OA TFT’ 회의록을 참고하여 작성함.

시기(3단계), 각 학회에서 전환을 실행하면서 공동행동을 준비한 시기(4단계), 전환 이후 새로운 공동행동을 추진한 시기(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11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 이사회는 학회지를 오픈엑세스로 전환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여 2018년 초에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가 공동으로 오픈엑세스 전환 선언을 한 구체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학회 OA TFT’는 오픈엑세스 전환에 따른 저작권료 수입 감소 대처 방안과 향후 진행을 위하여 로드맵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논의하는 동시에 문헌정보학 분야의 다른 학회와 공동으로 오픈엑세스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이 TFT는 2018

년도 봄철 학술대회의 주제를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를 위한 방향’으로 정하여 오픈엑세스 전환을 위한 집중 토론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픈엑세스 선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이 분야 학회 회장단은 공동으로 오픈엑세스 전환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각 학회 이사회 구성원이 중복되는 등 이 분야 학회가 오랫동안 형성한 밀접한 관계와 오픈엑세스 전환을 앞서서 추진한 한국문헌정보학회가 7개 학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이렇게 동시에 여러 학회가 참여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학회마다 오픈엑세스 전환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 시기에 상용DB업체가 학회에 저작권 독점계약을 요구하며 공공영역에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정경희, 2020) 상용 DB업체와 도서관간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되는 등 외적 환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정보학과 기록학 분야 7개 학회가 참여한 '문정 OA 선언'은 2018년 4월 한국문헌정보학회와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선언은 학술DB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학술논문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오픈엑세스 출판을 통하여 학술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 연구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언 직후 '학회 OA TFT'는 선언에 참여한 학회 공동명의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연구재단에 선언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여 오픈엑세스 학술지 발간과 전환, 이용활성화 및 학술지 홈페이지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문정 OA 선언' 직후에 각 학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있었던 상용DB업체인 누리미디어는 선언으로 인해 저작권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2018년 5월 31일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학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학회 OA TFT'는 '문정 OA 선언'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한 후 해당 업체에 공문으로 회신하고 이를 다른 학회에도 전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언 직후 이와 같은 대외적 활동을 하면서 '학회 OA TFT'는 선언에 참여한 각 학회에서 추천한 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문정 OA TFT'로 확대되었다. 2018년 6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문정 OA TFT'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ERIS 등 관련 기관에 오픈엑세스 출판 플랫폼 개발 지원 및 RISS의 원문보기 URL 정보 개선 등을 요청하면서 오픈엑세

스 전환 준비 작업을 해나갔다. 또한 2018년 말 7개 학술지를 동시에 오픈엑세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누리미디어에 조기계약종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정 OA TFT'는 이미 상용DB와 계약이 종료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전환 실무, 예컨대 상용DB업체에 제안할 비배타적이용허락 계약서 개발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TFT 활동은 2018년 11월 말에 오픈엑세스 전환을 위한 실무 처리방법을 담은 '문정 OA 전환 로드맵'을 개발하여 각 학회에 제출하면서 종료되었고 이 로드맵은 그해 말 각 학회의 이사회에서 추진되었다.

'문정 OA 전환 로드맵'에는 상용DB와 계약을 종료하고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작권 및 이용허락, 이용정책, 출판비용 확보, 출판 및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새로운 결정 사항을 담은 것이다. 이 로드맵은 '문정 OA 선언'이 이루어졌던 2018년 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문헌정보학 분야 8개 학술지 OA 공동추진안'(이재윤, 2018)을 근간으로 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초기 안은 출판비용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쇄본 발행 중단, 심사료와 게재료의 출판비 전환, 회원할인, 공공기금 조성 등을 제안하였고 새로운 출판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과 오픈엑세스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문정 OA 전환 로드맵'은 이 안에서 언급된 사항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작권과 이용허락 정책을 추가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밝힌 것이다. 또한 로드맵에는 OA 전환 추진 단계와 본문에 언급된 사항을 쉽게 설명하는 FAQ도 담겨있다. '문정 전환 OA 로드맵'의 항목별 세부 사항은 〈표 3〉과 같다.

<b>인쇄출판</b> • 중단 • 별쇄본 폐지	<b>전자출판 플랫폼</b> • KISTI-OCEAN(?), NRF-JAMS(?) • KCI와 연동되는 새로운 플랫폼 필요(발행일 이후 즉시 포스팅)	<b>심사료</b> • 폐지 (저자, 심사자 모두)
<b>출판비</b> • 게재료를 출판비로 전환 • 기존 심사료 + 게재료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	<b>개인회원 혜택</b> • 비회원의 출판비 합중 (회원 출판비 + 연회비 이상으로 책정)	<b>단체회원</b> • 폐지 • 출판비 지원 공공 기금 추진
<b>기존 발행분</b> • 일괄 OA 전환	<b>OA 수준</b> • 최대한 개방 보장 (출판 직후 접근, 자유 포스팅 허용 등) • 상업 DB에도 포스팅	<b>OA 전환 시기</b> • 2019~2020

〈그림 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OA 전환(안)(이재윤, 2018)

〈표 3〉 ‘문정 OA 전환 로드맵’ 항목별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여 논문게재 결정된 저자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외한 저작권산권 전부 양도</li> <li>•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CC BY-NC-ND 적용</li> <li>• KJCI에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보 등록</li> </ul>
이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영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해 공공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기관(KISTI, KERIS, NRF 등)이 학회와 이용협약을 할 것</li> <li>• 민간영역: 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 체결하여 안정적, 지속적이며 출판과 동시에 서비스 이루어지도록 할 것</li> <li>• 국제영역: 국제적인 OA 학술지 디렉토리에 등록</li> </ul>
출판비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자 부담 논문투고비용, 사사표기논문 추가게재료는 현행 수준대로 유지</li> <li>• 동료심사자에게 논문심사료 지급 중단</li> <li>• 학술지 출판지원기관에 인쇄본 발행비가 아닌 웹출판에 대한 지원 요청</li> <li>• 개인회원에게 인쇄본 배포 중단(희망시 자비부담), 단체회원에게는 제공</li> </ul>
출판 및 유통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플랫폼은 KISTI로부터 지원받음</li> <li>• KISTI와 NRF에 전주기출판플랫폼 개발 지원요청</li> <li>• 전주기출판플랫폼 개발 전까지 투고심사는 JAMS, 유통은 KISTI의 새로운 OA 출판플랫폼 사용</li> </ul>

2019년에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3개 학술지가 오픈액세스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문학 분야 학회들을 주축으로 한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에 문헌정보학 분야 7개 학회도 참여하여 ‘문정 OA 선언’에서 밝힌 타 분야 학회들과의 연대의 노력을 실천해나갔다. 또한 9월부터는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 한 이후 새로운 출판 모델을 모색

하고 학술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준비모임이 시작되었다. 이 준비모임은 그해 말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주제를 ‘오픈액세스 확산의 기반과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오픈액세스 출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이하 ‘문편집’) 출범 취지문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문헌정보학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출범을 알린 ‘문편집’은 이 분야의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적합한 출판 모델을 모색하고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정 OA TFT’가 각 학회의 오픈엑세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면 ‘문편집’은 전환 이후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문편집’은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공통기준’을 제정하여 각 학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픈엑세스 전환을 포함하여 학술지와 관련한 사안을 함께 논의해 나갔다. ‘문편집’ 출범 이후 2020년~2022년 초까지 4개 학술지가 상용DB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오픈엑세스 전환을 시작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한국문헌정보학회와 한국비블리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문헌정보학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주제로 현재의 학회 활동과 학술지 오픈엑세스 전환 이후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규모를 더 확장하여 문헌정보

학 분야 4개 학회가 ‘문헌정보학 학회 활동 및 학술지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자 공동체로서 학회가 개별 연구자와 사회,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학술지를 어떻게 출판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 3. 오픈엑세스 전환 현황

#### 3.1 저작권과 이용허락 정책

‘문정 OA 전환 로드맵’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논문 저자로부터 양도받은 후 CC BY-NC-ND 라이선스를 논문에 표시하고 KJCI에 이를 등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7개 학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6개 학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술지의 저작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개정하였고, 5개 학회의 규정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재확정논

<표 4> 저작권 및 이용허락 정책

	저작권 양도동의서	규정 개정 및 권리 명시	CCL 적용 명시	KJCI 정보 등록
J 1	사용	개정, 구체적 명시	규정과 논문 첫 페이지	CC BY-NC-ND 등록
J 2		개정없음, 구체적 명시없음	적용안함	CC BY로 등록
J 3		개정, 구체적 명시	규정과 논문 첫 페이지	CC BY-NC-ND 등록
J 4			적용안함	저자-학회 공동소유등록
J 5		개정, 구체적 명시 없음	논문 첫 페이지	CC BY-NC-ND 등록
J 6		개정, 구체적 명시	규정과 논문 첫 페이지	미등록
J 7				



문에 대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사항은 모든 학회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다. 다른 학술지와 달리 종전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에 포함시킨 학술지(J5)도 있었다.

CCL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4개 학술지는 CC BY-NC-ND를 적용한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논문의 첫 페이지에 이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논문에 CCL만 표시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아직 상용DB업체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거나 JAMS에서 논문투고시 저자가 CCL을 선택하는 기능을 학술지의 CCL 적용정책으로 오인한 탓이었다. 논문저자가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면 저자는 더 이상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JAMS에 논문투고시 스스로 CCL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학회는 JAMS에서 논문저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KJCI에 CC BY-NC-ND 적용을 등록한 학술지는 3종이었다. 전환된 지 1년 미만인 2개

학회는 등록 준비 중이었고, 논문에 CCL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CC BY로 등록한 학술지는 학회의 실무상 오류였다고 밝혔다. KJCI에 저작권 소유주체나 CCL 정보를 등록하는 업무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학회 오픈액세스 전환 담당자가 CCL과 KJCI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2 학술지 유통

‘문정 OA 전환 로드맵’은 전환 이후 공공영역과 상업영역 모두에 학술지 원문을 공개하도록 권하고 있다. 우선 국내 공공영역의 학술지 서비스 플랫폼인 RISS, KCI, ScienceON과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DOAJ)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RISS에서는 상용DB업체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1개 학술지(J4)를 제외하면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ScienceON과 KCI로 원문링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KCI에서는 모두 2000년대 이

<표 5> 학술지 유통 현황: 공공영역

	국내			국제
	RISS	KCI	ScienceON	DOAJ
J 1	• 창간호~최신호 • 스콜라, eArticle, ScienceON, KCI로 원문링크	2001(창간)~최신호	창간호~최신호	미등록
J 2	• 창간호~최신호	2000(창간)~최신호		
J 3	• ScienceON, KCI로 원문링크	2002~최신호		
J 4	• 2002(23권)~최신호 • KCI, eArticle로 원문링크			
J 5	• 창간호~최신호			
J 6	• ScienceON, KCI로 원문링크			
J 7	• J7 최근호: 링크제공 안됨			

〈표 6〉 학술지 유통 현황: 상업 영역

	DBpia	KISS	스콜라	eArticle		
J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I 링크(18~20년)</li> <li>• OA 컬러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li>• 발행기관 KISTI로 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간호~최신호 원문 무료공개</li> <li>• 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링크</li>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ul>		
J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사항 없음</li> </ul>
J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li>• OA 컬러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li>• 발행기관 KISTI로 표기</li> <li>• 협약 통해 제공됨 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식연계기관과의 협약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링크</li>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ul>		
J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문이용불가로 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기관 KISTI로 표기</li> </ul>
J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사항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3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ienceON 일부 링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사항 없음</li> </ul>		
J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3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3과 동일</li> </ul>
J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3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3과 동일</li> </ul>

후 논문만 공개되고 있는 반면 ScienceON에서는 7개 학술지 모두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원문이 공개되고 있었다. J4 학술지의 2002년 이전 호는 RISS에서 ScienceON으로 연계되지 않고 원문복사신청서비스로만 안내되고 있었다. DOAJ에 등록된 학술지는 아직 없었다.

상용DB에서 학술지 유통은 매우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J1 학술지는 2개 상용DB 업체와 비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창간호부터 최신호까지 무료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일부 논문만이 KCI나 ScienceON으로 링크되어 있었다. DBpia에서는 일부 논문이 AccessON 크롬 익스텐션의 오픈액세스 컬러 표시와 함께 KCI 또는 ScienceON으로 링크되어 있었고 KISS에서는 일부 논문이 ScienceON으로 링크되어 있었으나 발행기관이 KISTI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스콜라 DB에서도 발견되었다. eArticle에서는 4개 학술지가 창간호부터 2021년까지 ScienceON으로 링크되어 있었고 발행기관 표기 오류도 없었다. 대부분 학술지가 ‘문정 OA 전환 로드맵’의 제안과 달리 상용DB업체와 비배타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공공영역의 원문서비스가 개선되어 검색엔진 등에서 논문이 원활하게 검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 3.3 출판비용 확보 방안 및 인쇄본 출판

로드맵은 사사표기 논문과 일반논문의 저자 부담 논문출판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심사료를 출판비로 전용하고 인쇄본 발행을 중단하여 출판비를 확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심사료를 출판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1개 학술지를 제외하고 모두 인쇄본 발행을 중단하였으나 일부는 단체회원에게 배포하고 있었다. 일반논문에 대한 저자부담 논문출판비는 10만원~25만원이었고,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은 30만원~35만원이었다. 논문출판비를 인상한 학술지도 있었으나 회원 20%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초과 페이지 당 비용을 2배 인상한 학술지도 있었다. 또한 전환 이후 동료심사 결과가

〈표 7〉 출판비용과 인쇄본 발행 현황

	저자 부담 논문출판비 (단위 만원)	할인제도 등 (단위 만원)	심사료 전환	인쇄본 중단
J 1	유지: 일반 20, 사사표기 30, 초과면당 1만원	긴급논문출판비: 추가 10	전환	전환 후 1년 기관회원에게 제공
J 2	유지: 일반 10, 사사표기 30, 초과면당 5천원	심사료 6만원 별도	유지	기관회원에게만 제공
J 3	J1과 동일	폴타임 대학원생 9만원	전환	전환 이전에 중단
J 4	인상: 일반 15(기준 10), 사사표기 35(기준 30), 초과면당 1만원	회비납부시 20% 할인도입, 심사료 10 별도	유지	계속 발행
J 5	유지: 일반 20, 사사표기 30, 초과면당 1만원	계재불가 논문 50% 부과	전환	중단
J 6	인상: 일반 25(기준 20), 사사표기 35(기준 30), 초과면당 1만원	대학원생 9만원, 회비납부시 20% 할인, 계재불가 50% 부과, 긴급논문 45	전환	중단
J 7	인상: 일반 20, 사사표기 30, 초과면당 2만원(기준 1만원)	폴타임 대학원생 50% 할인	전환	요청 회원 무상제공

계재불가인 논문에 대하여 50%의 논문출판비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학술지도 있었다. 오픈액세스 전환 이전부터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논문출판비 할인제를 적용하였던 학술지들은 전환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학술지는 일반 논문출판비에 비해 약 10만원~15만원 높은 긴급논문출판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 3.4 출판 및 유통 플랫폼

로드맵은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을 위하여 논문투고부터 유통까지 모두 가능한 전주기 출판 플랫폼 개발을 공공영역에 요청하고 그 전까지 논문투고 및 심사 관리는 JAMS, 유통 관리는 KISTI에서 개발 중인 오픈액세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영역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용 전주기 플랫폼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투고심사 관리는 모두 JAMS에서 하고 있으며 유통은 학술지마다 다

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AccessON은 2019년 말 KISTI가 개발하여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에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이며, KJC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플랫폼이다. AccessON과 KJC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각각 4종씩이었으며 두 개 플랫폼을 모두 사용하는 학술지와 둘 모두 사용하지 않는 학술지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2002년 이후의 논문을 공개하고 있었다. 두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술지 중에서 논문공개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표 8〉 참조).

〈표 8〉 유통 플랫폼 사용 및 원문공개 현황

	AccessON(KISTI)	KJC(NRF)
J 1	2001(창간호)~최신호	미사용
J 2	미사용	2000(창간호)~최신호
J 3	2002(19권1호)~최신호	미사용
J 4	미사용	
J 5	2010(21권)~최신호	
J 6	2002(36권1호)~최신호	2002~최신호
J 7	미사용	

### 3.5 편집간사 인건비

로드맵은 학술지 편집간사 인건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픈엑세스 전환을 계기로 각 학회는 상용DB업체에게 맡겼던 유통 업무를 편집간사가 담당해야 하고 그동안 편집간사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인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편집간사의 인건비 인상 여부와 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절반 정도의 학술지가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학술지가 발간되는 월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편집간사 연간 인건비는 120만원~440만원, 논문 1편당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18,000원~140,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회마다 편집간사가 맡고 있는 업무와 투고논문 수가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학술지 편집간사가 어느 정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들의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비용이 책정되었는지, 정당한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 4. 오픈엑세스 전환 효과: 인용률

### 4.1 KCI IF 변화 분석

해외의 경우 오픈엑세스 전환 학술지의 이용, 인용, 게재논문 측면의 효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용량은 뚜렷하게 증가하였고(Davis et al., 2008; Wenaas, 2021) 인용횟수가 증가한 경우도 많으나(Busch, 2014; Harnad & Brody, 2004; Lawrence, 2001)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Momeni et al., 2019). 국내의 경우 이용량 추적은 주된 유통경로였던 상용DB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분석하기 어렵다. 2019년 1호부터 전환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년 3호부터 전환된 정보관리학회지의 인용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환 전후 인용지수는 다음 <표 10>, <표 11>과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두 학술지 모두 오픈엑세스로 전환한 이후 측정된 인용지수는 그 이전 4~5년 동안의 지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정보관리학회지는 2019년 3호부터 전환되었으므로 상용DB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검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논문

<표 9> 편집간사 인건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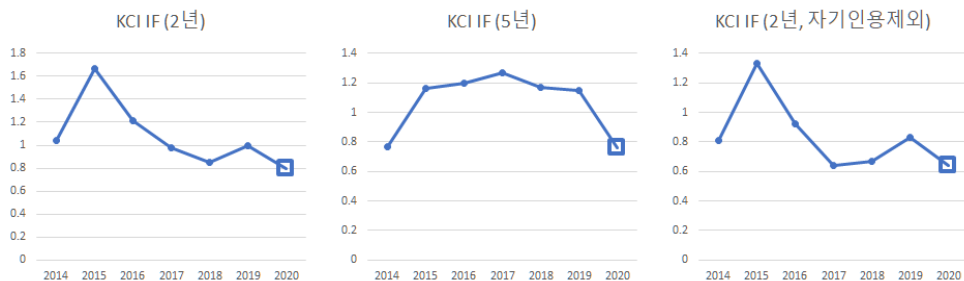
	인건비(단위 만원)		발행월	2021 게재 논문수	OA 전후 인상 (단위 만원)
	월/호별	연간			
J 1	월 30	360	2/5/8/11	48	•인상(기준: 총무+편집조교 월 30)
J 2	월 30, 발간월 50	440	1/4/7/10	31	•인하(2021년까지 월 50) •이유: 학회 재정문제, OA와 무관
J 3	월 20	240	3/6/9/12	51	•인상(기준: 호별 20)
J 4	호별 30	120	3/6/9/12	38	•유지
J 5	월 30	360	3/6/9/12	50	•기타(기준: 학회 이외 비용으로 지출)
J 6	호별 30	120	2/5/8/11	68	•유지(이사회 논의 있었음, 인상 보류)
J 7	월 20	240	3/6/9/12	61	•인상(기준: 호별 20)

〈표 10〉 OA 전환 전후 정보관리학회지 KCI 인용지수 변화(2020년은 전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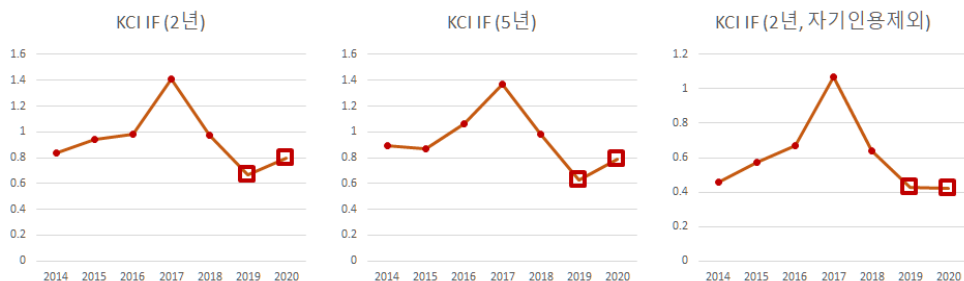
기준 연도	KCI IF (2년)	KCI IF (3년)	KCI IF (4년)	KCI IF (5년)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4	1.04	0.94	0.88	0.77	0.81
2015	1.67	1.39	1.26	1.16	1.33
2016	1.21	1.48	1.29	1.20	0.92
2017	0.98	1.35	1.46	1.27	0.64
2018	0.85	0.88	1.13	1.17	0.67
2019	1.00	0.95	0.88	1.15	0.83
2020	0.80	0.91	0.79	0.76	0.64

〈표 11〉 OA 전환 전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KCI 인용지수 변화(2019년부터 전환 이후)

기준 연도	KCI IF (2년)	KCI IF (3년)	KCI IF (4년)	KCI IF (5년)	KCI IF (2년, 자기인용제외)
2014	0.84	1.01	0.95	0.89	0.46
2015	0.94	0.90	0.91	0.87	0.57
2016	0.98	1.07	1.11	1.06	0.67
2017	1.41	1.39	1.35	1.37	1.07
2018	0.97	0.97	0.98	0.98	0.64
2019	0.67	0.72	0.63	0.63	0.43
2020	0.80	0.84	0.84	0.79	0.42



〈그림 2〉 OA 전환 전후 정보관리학회지의 KCI 인용지수 변화 (사각형으로 표시한 2020년은 전환 이후)



〈그림 3〉 OA 전환 전후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KCI 인용지수 변화 (사각형으로 표시한 2019, 2020년은 전환 이후)

을 작성하여 투고하고 게재되는 간격을 감안하면 2020년에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에게 정보관리학회지의 논문이 노출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 KCI IF(2년)은 0.80으로서 전환 직전 5년(2015~2019) 평균(1.142) 대비 29.9% 감소하였다. 2020년 KCI IF(5년)은 0.76으로서 전환 직전 5년(2015~2019) 평균(1.190) 대비 36.1% 감소하였다.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2020년 KCI IF(2년)은 0.64로서 전환 직전 5년(2015~2019) 평균(0.878) 대비 27.1% 감소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는 특히 5년 IF가 전환 후 하락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2019년 1호부터 오픈액세스로 전환되었으므로 2019년에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에게 논문이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추측된다. 2019년 KCI IF(2년)은 0.67로서 전환 직전 5년(2014~2018) 평균(1.028) 대비 34.8% 감소하였다. 2019년 KCI IF(5년)은 0.63으로서 전환 직전 5년(2014~2018) 평균(1.034) 대비 39.1% 감소하였다.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2019년 KCI IF(2년)은 0.42로서 전환 직전 5년(2014~2018) 평균(0.682) 대비 37.0% 감소하였다. 전환 후 1년이 지난 2020년 인용지수는 대체적으로 약간씩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환 직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한 수준이었다. 전환직전 5년 평균 대비 하락율은 2년 IF가 22.2%, 5년 IF가 23.6%, 학술지 자기인용 제외 2년 IF가 38.4%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특히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2년 IF가 전환 후 2년이 경과해도 하락율이 여전히 높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오픈액세스 전환 직후 두 학술지의 KCI 인용

지수는 직전 5년 동안 지수 평균에 비해서 최소 27.1%(정보관리학회지 2020년 자기인용제외 2년 IF)에서 최대 39.1%(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년 5년 IF)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인용지수 하락 원인을 상용DB에서 논문이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 연도의 인용지수는 직전 2년 또는 직전 5년 동안의 발행논문이 인용된 횟수를 기반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면 대상 논문 집합도 일부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2년 IF는 2017년과 2018년에 발행된 논문의 2019년 평균 인용횟수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2020년 2년 IF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논문의 2020년 평균 인용횟수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절반은 다른 논문집합의 인용영향력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하필 전환 직전에 발행된 논문들이 인용영향력이 낮은 논문들이었기 때문에 평균 인용횟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5년 IF는 다음 연도 지수를 측정할 때에도 인용대상 논문집합의 80%가 동일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두 학회지의 지표가 모두 전환 직후 하락하였다. 정보관리학회지는 한 해의 인용지수,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두 해의 인용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상당한 하락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환으로 인한 상용DB 서비스 중단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 5.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5.1 드러난 문제들

7종의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 현황과 인용률

을 분석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과 이용허락 정책과 관련하여 로드맵의 제안대로 CC BY-NC-ND를 논문단위에 표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한 학술지가 많으나 아직 적용하지 못한 학술지도 있었다. 또한 KJCI에 저작권 및 CCL 유형을 정확히 등록하지 못하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경우도 있었다. JAMS의 CCL 기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실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논문 저자와 양도받은 권리자로서 학회의 권한 등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CCL, KJCI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놓치기 쉽다. 한편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CC BY-NC-ND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로드맵에서 제안한 것이다. 로드맵은 원문공개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들과 계약에 필요하므로 논문저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CCL을 적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허락했으므로 이들 공공기관은 이에 근거해 원문서비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학회가 저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야 할 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CC BY-NC-ND를 계속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 라이선스는 CCL 유형 중에서 이용허락 범위가 가장 좁고 향후 논문을 텍스트마이닝에 활용하거나 XML 형식으로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회가 학술지 논문을 수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고 국내의 상용DB에서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활용하는 것이 오픈액세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고려하면서 동일조건의 변경허락과 영리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는 CC BY-SA 등의 적용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이용정책과 관련하여 상용DB업체는 KISTI와 협약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술지의 원문이 부분적으로만 제공되고 있고 서지정보 오류도 있었다. 일부분의 논문만 제공될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DB에 학술지가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회 자체에서 해결하기 보다 KISTI와 관련 업체 간에 해결하도록 학회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 DOAJ에 등록을 한 학술지는 아직 없었는데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과 인용확산을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어권 독자를 위하여 영문초록을 조금 더 길게 구조적으로 작성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자동번역이 가능하도록 XML 등의 형식으로 변경하여 출판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술지가 아직 새로운 플랫폼에서 과월호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각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학술지에 공통되므로 학회가 공동으로 처리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학술지는 저자부담 논문출판비를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나 기본 요금과 초과페이지, 사사표기 논문에 대한 비용 등 부분적으로는 인상된 측면도 있다. 편집간사 인건비는 전환 이후 인상하였거나 인상을 검토한 학술지가 많았고 학술지별로 인건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유통관리 업무나 DOAJ 등록 등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집간사의 업무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타 학문분야나 민간영역에서 유사한 노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서 학회가 편집간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집간사의 인건비 인상은 결국 저자부담 논문출판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에서 저자부담 논문출판비는 구독 학술지에서 이용의 장벽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출판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정 OA 선언'에 참여한 학회가 효율적인 출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픈액세스 전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된 인용지수는 두 학술지 모두 전환 이후에 그 이전 4~5년 동안의 지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인용지수 하락의 원인이 OA 전환 때문에 상용DB에서 논문이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용DB 서비스 중단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픈액세스 전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학술지에 대한 이용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5.2 개선 방향

앞서 요약한 문제 중에는 개별 학회에서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CCL을 논문에 표기하거나 학술지 관련 규정에 밝히는 것, KJCI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한번 처리하면 완료되므로 '문정 OA 전환 로드맵'을 참고하여 개별 학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 중에서도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거

나 처리하기 까다로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오픈액세스 학술지 플랫폼에 과월호를 공개하거나 DOAJ에 학술지를 등록하는 일, 협력기관에 원문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일 등이다. 물론 이러한 업무도 개별 학회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논문접수와 심사관리,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 업무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회 내에 학술지 유통을 담당하는 이사진을 별도로 정한 후에 이 업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결국 실무는 편집간사의 일이 되므로 편집간사는 편집과 유통 양쪽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무는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처리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실무 과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용DB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인용이나 이용이 저하되는 문제 해결에도 유용한 접근방식이다. 오픈액세스 전환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용자들이 새로운 유통체제에 익숙해지면 인용이나 이용 저하는 해소될 수도 있지만, 관련 학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도 있다. 신규 출판되는 논문을 관련 학회 회원들에게 공동으로 안내하기처럼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거나, 함께 동일한 학술출판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동일 플랫폼에 있는 타 학술지의 유사 주제 논문을 연계해주는 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실무와 달리 꽤 시간을 들여서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일들도 있다.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가 양도받는 것과 CC BY-NC-ND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고 CCL을 적용하였으므로 공공영역의 원



문서서비스기관은 학회에 별도로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전환 이후의 논문을 자유롭게 복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기관과 협약을 이유로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만일 학회가 상업영역에 학술지 원문을 제공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들로부터 라이선스 수입을 얻고자 한다면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상용DB업체는 학회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해당 DB에서 무료로 공개하기 위하여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DB로부터의 라이선스 수입을 염두에 두고 CC BY-NC-ND를 적용하는 것도 그다지 타당해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상용DB에서 유료논문 서비스가 가능하더라도 어디에서라도 논문에 대한 지불장벽을 만드는 것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며, 공개된 논문을 도서관이 유료 구독하는 더블디핑(double dipping)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할 이유는 매우 희박해진다. 앞서 문제점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픈사이언스 환경에서 학술지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CCL 유형을 재설정할 필요도 있다. '문정 OA 전환 로드맵'을 제안하였던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오픈액세스에 적합한 저작권의 소유 주체와 라이선스 유형은 이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각 학회의 편집인들이 공동으로 고민하여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비

교적 장기적으로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문정 OA 전환 로드맵'의 제안대로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심사료를 출판비로 전환하고 인쇄본을 중단하여 상용DB로부터의 라이선스 수입 손실을 메꾸고 있고 일부 학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저자부담 출판비를 인상하면서 출판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유통업무 증가나 기존의 저평가된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편집간사의 인건비를 인상한 학회도 있다. 오픈액세스 전환은 편집간사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회의 업무도 가중시켰다. 최근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의 편집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한 연구(김수정 외, 2022)에서도 이미 편집위원회는 교정 교열 등의 편집업무만으로도 과중한 봉사를 하고 있어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학술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소홀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술지 편집 업무를 위한 학회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회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열정적인 핵심 학자와 구성원의 봉사에 의존하면서 규모의 경제는 부족한 상태인데 핵심 학자들이 더 이상 학술지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 오픈액세스 출판이 중단될 위험도 있다(Solomon, Laakso, & Björk, 2016).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학술지들이 다시 구독학술지로 역전환하는 사례들도 계속 보고되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업출판사에 학술지 출판을 넘겼기 때문이다(Matthis et al., 201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문정 OA 선언'에 참여한 학회가 편집업무의 일부와 유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학술지 출판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정 OA 전환 로드맵’은 상용DB와 계약을 중단하고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선언에 참여한 학술지가 모두 오픈액세스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이제는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공동출판을 위한 다음 단계 로드맵을 개발할 단계이다. 학회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를 시작으로 각 학회의 학술지 편집과 유통업무를 상세하게 드러내고 이 중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규환 등(2020)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각 학회별 편집간사는 유지하면서 ‘문편집’ 하에 공동출판편집국을 설치하여 교정과 교열 등 편집업무와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는 학술지 출판 전임 연구원과 실무자를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회가 현재 지출하는 수준의 출판비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사무국에서 매년 4개호를 발간하는 7개 학술지가 어느 한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평균 한 달에 2~3호를 간행할 수 있도록 간행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학술지 출판업무 중 교정·교열과, 편집디자인 및 유통업무 지원을 받아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상당히 줄이고 편집디자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외부 기관과 협업가능성도 모색하면서 학회 간 공동출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단계이다.

## 6. 결론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편

집간사의 실무는 가중되고 있고 일시적일 수 있으나 학술지 인용률도 하락하였다.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은 최근 2~3년간 오픈액세스에 꽤 큰 관심을 보였고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비 지원논의도 있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용DB를 활용하는 것이 당장에는 더 나올 수 있고 학술지 출판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더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학회가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는 전환 이후 이 분야 학회가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학회의 역할과 학술지 출판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학회가 주도한 오픈액세스 전환은 정부나 연구기금기관의 의무화 규정에 의한 하향식(top-down) 오픈액세스와 다르며 상업출판사에 의한 영리 목적의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과도 다르다. 또한 도서관이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출판사와 체결하는 오픈액세스 전환계약과도 다르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기본적으로는 학술지식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었으며 더 나아가 학회가 연구자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공동체인지를 점검하는 계기였다고 보인다. 연구자들은 임용과 승진을 위한 논문작성을 위하여 각자도생하고, 학회는 등재지를 유지하여 이들의 논문을 출판하는 수단으로만 학술지를 바라본 것은 아닌지, 동료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친 논문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명예로운 일이 피하고 싶은 ‘업무’로만 남겨진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과도한 봉사로 지치고, 누

군가는 이름뿐인 학회 구성원이 되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픈액세스를 목적 중심 즉, 얼마나 많은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것인가,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바라볼 경우 우리가 오픈액세스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잃게 된다(Raju,

2022). 문헌정보학 분야의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과 전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출판의 방향에 대한 공적 공간에서의 계속된 논의들은 오픈액세스를 목적이 아닌 학회의 학술활동을 재구조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픈액세스 학술지 공동출판을 위한 노력도 이러한 논의의 한 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규환, 이수상, 이재운, 정경희, 강희경 (2020).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출판유통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수정, 이종욱, 정인영, 오상희 (2022).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및 학술행사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319-345.  
<https://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 박숙자, 이해령, 장문석 (2020). OA라는 형식이 학회에 제기한 질문: 지식공유 대담. 상허학보, 60, 767-794.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22>
- 반재영, 김유동, 장문석 (2020). 상허학회는 Open Acces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A 실무, 서른일곱 걸음. 상허학보, 60, 795-825.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23>
- 이재운 (2018.4.20). 문헌정보학 분야 8개 학술지 OA 공동 추진안.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2018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서울.
- 정경희 (2020).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205-22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205>
- Bird, C. (2008). Oxford journals' adventures in open access. *Learned Publishing*, 21(3), 200-208.  
<https://doi.org/10.1087/095315108X288910>
- Branin, J. (2011). College & Research Libraries goes fully open access (editorial).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2), 108-109. <https://doi.org/10.5860/0720108>
- Busch, S. (2014). The Impact Factor of journals converting from subscription to open access. *Research in Progress Blog*, November 6. Available:  
<https://blogs.biomedcentral.com/bmcblog/2014/11/06/the-impact-factor-of-journals-con>

- verting-from-subscription-to-open-access/  
Cuddy, C. (2012). President's message: open access/open data.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31(1), 1-3.
- Davis, P. M., Lewenstein, B. V., Simon, D. H., Booth, J. G., & Connolly, M. J. L. (2008). Open access publishing, article downloads, and citations: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J*, 337, a568. <https://doi.org/10.1136/bmj.a568>
- Gerrity, R. (2012). Editor's comment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31(1), 4-4.
- Harnad, S. & Brody, T. (2004). Comparing the impact of open access (OA) vs. non-OA articles in the same journals. *D-Lib Magazine*, 10(6). Available: <http://www.dlib.org/dlib/june04/harnad/06harnad.html>
- König, T. (2020). Converting to open access. the Austr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OZP) as a case study. *Österreichische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49(3), 1-6. <https://doi.org/10.15203/ozp.3184.vol49iss3>
- Lawrence, S. (2001). Free online availability substantially increases a paper's impact. *Nature*, 411, 521. <https://doi.org/10.1038/nature28042>
- Momeni, F., Mayr, P., Fraser, N., & Peters, I. (2019). From closed to open access: a case study of flipped journals. *Proceedings of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tometrics & Informetrics (ISSI 2019)*, 1270-1275.
- Momeni, F., Mayr, P., Fraser, N., & Peters, I. (2021). What happens when a journal converts to open access? a bibliometric analysis. *Scientometrics*, 126(12), 9811-9827. <https://doi.org/10.1007/s11192-021-03972-5>
- Raju, R. & Claassen, J. (2022). Open access: from hope to betrayal.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83(4). Available: <https://crln.acrl.org/index.php/crlnews/article/view/25405/33290>
- Solomon, D. J., Laakso, M., & Björk, B-C. (2013).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citation rates and growth among open access journals. *Journal of Informetrics*, 7(3), 642-650. <http://dx.doi.org/10.1016/j.joi.2013.03.008>
- Solomon, D., Laakso, M., & Björk, B. (2016). Converting scholarly journals to open access: a review of approaches and experiences. Available: <http://nrs.harvard.edu/urn-3:HUL.InstRepos:27803834>
- Wenaas, L. (2021). Attracting new users or business as usual? a case study of converting academic subscription-based journals to open access. *Quantitative Science Studies*, 2(2), 474-495. [https://doi.org/10.1162/qss\\_a\\_00126](https://doi.org/10.1162/qss_a_00126)

[ 문서 ]

한국문헌정보학회 (2017. 11. 17). 2017년도 3차 이사회 회의록. 국립중앙도서관 제6분임실.

한국문헌정보학회 OA 추진 TFT (2018. 1. 15). TFT 1차 회의록.

한국문헌정보학회 OA 추진 TFT (2018. 5. 17). TFT 2차 회의록.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단체 공동 OA TFT (2018. 6. 8). TFT 1차 회의록.

문헌정보학분야 학술단체 공동 OA TFT (2018. 7. 3). TFT 2차 회의록.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hn, JaeYoung, Kim, You-dong, & Jang, Moon-seok (2020). The Sanghur Society decided to promote Open Access: OA practice, 37 steps. Sanghur Hakbo: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60, 795-825.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23>

Joung, Kyoung Hee (2020). A recording of the transition process to the open access publishing in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4), 205-227.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205>

Kim, Gyuhwan, Lee, Soosang, Lee, Jae Yun, Joung, Kyong Hee, & Kang, Heekyung (2020). A study on publishing & distribution model for vitalization of open access to domestic journals. KERIS.

Kim, Soojung, Lee, Jongwook, Jeong, In Yeong, & Oh, Sanghee (2022). Perceptions of academic journals and scholarly ev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 group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319-345, <https://doi.org/10.16981/kliss.53.4.202212.319>

Lee, Jae Yun (2018.4.20). Joint OA proposal for 8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esentations at the 2018 Spring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Park, Suk Ja, Lee, Hye Ryoung, & Jang, Moon-seok (2020). The question posed by the form of OA to the scholarly society: knowledge sharing conversation. Sanghur Hakbo: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60, 767-794.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22>